

제2강 콤플렉스와 집단무의식

집단무의식

C.G. 융은 1911-1912년의 『리비도의 변환과 상징』이라는 저작을 내게 되는데, 이 또한 S. 프로이트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 되버렸다. 그러나 이 당시의 심층심리학적 작업은 대부분 프로이트의 초기 저작에서 밝히게 되었던 ‘무의식’에 관한 내용들을 검증하고 새로운 움직임으로 발전하기 위한 첫 걸음들이었다. S. 프로이트는 이러한 당시의 심층심리학자들의 움직임을 오히려 정신분석학이 다른 영역으로 널리 그 적용범위를 넓혀가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C.G. 융을 일찌기 ‘무의식’과 관련지어 신화학, 민담, 종교 등에서 일어나는 여러 정신의 현상을 살피면서 정신의 일반적인 논의로 나아갔다. 신경증적인 현상보다는 정신분열증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환상과 원시 종족들의 우주발생론적 환상 경험과의 유사성을 확인하여 인간정신의 발달사 전반에 대한 적용가치를 찾은 것이다. 1911-1912년의 <<리비도의 변환과 상징>>에서 무의식적인 정신과정으로 드러난 성애적 표현들이 여러 나라의 신화나 종교 현상에서도 흔히 등장할 수 있음을 밝힌다. 또한 성애적 욕구나 충동으로 밝혀온 ‘리비도’를 생명력과 같은 정신에너지로 일반화 할 것을 제안한다. 차츰 C.G. 융은 ‘리비도’의 형상화가 가진 전형성을 발견하고 각 개별인간에 기초하고 있는 정신의 구조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전 세계의 종교나 신화에서 보듯이 전승과는 관계없이 집단적 표상의 유사함, 심지어 우리가 매일 꾸는 꿈에서도 전형적이라고 할 像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C.G. 융은 이러한 像들을 전형적인 성질에 의거하여 집단무의식의 “원형(Archetypen)”이라고 불렀다. 이로서 C.G. 융은 ‘집단무의식’의 발견자로 알려진다.

신생아의 정신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백지상태tabula rasa처럼 가정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다. 어린이가 분화된, 유전에 의하여 미리 결정된, 그리고 개별화된 뇌를 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한, 그는 밖에서 오는 감각 자극들에 대하여 어떤 막연한 준비상태로서가 아니라, 특수한 준비상태에서 맞이 한다. 그것은 곧 통각의 독특한 개별적인 선택과 형성이 원인이 된다. 이러한 준비상태는 유전된 본능이며, 선형적이 입증되고 있다. 선형적이란 본능에 근거한 통각의 선형적이고 형태적인 조건들을 의미한다. 그것의 존재는 어린이와 꿈을 꾸는 사람의 세계에 인간의 모습으로 각인한다. 그것들은 원형이며 모든 환상활동에서 일정한 길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어린이의 꿈에 나타나는 환상적인 현상이나 정신분열증의 망상 구성에서 놀랄만한 신화적인 유례들을 만들어낸다. 마찬가지로 문제는 유전된 표상Vorstellung이 아니라, 유전된 표상의 가능성이다. 또한 그것은 개인적인 유전이 아니라 보편적인 원형의 출현으로 미루어 추정할 수 있듯이 주로 보편적인 유전이다.”¹⁾

인간의 신체를 예를 든다면 모든 인종적 차이를 넘어서 거의 공통적인 해부학적 구조로서 인간 종이라는 보편적인 특성을 나타내면서 위에 각기 고유한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신도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기본 구조가 되는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음을 상정하는 것이다. 이를 ‘집단무의식’이라고 하는데, 거의 역사적으로나 유비할 수 있는 전형적인 표상으로 나타나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환상뿐 아니라, 신화나 민담

1) C.G. Jung, 'Über den Archetypus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Anima-Begriffes', in G.W. Bd. 9 par. 136

에서의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모티브 혹은 신화소들, 각 개인들의 꿈에서 특징적인 형상으로 드러난다. ‘집단무의식’은 S. 프로이트에서 “태고적 잔재”나 “원시적 기능양식”들로 인식되었고 의식과는 매우 동떨어진 충동이나 태고의 양식으로만 알려졌을 뿐이었다.

이제 C.G. 융에 의해 심혼의 구조는 의식, ‘개인무의식’ 그리고 ‘집단무의식’이라는 세 층위로 나누어진다. 개인사로 소급시켜서 억압된 내용을 의식으로 환기할 수 있는 무의식적 내용이라면 ‘개인무의식’에 해당한다. 주로 자아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억압에 의하여 후차적으로 형성된 영역이다. ‘집단무의식’은 개별 의식이 정립되기 전 이미 인간정신의 전제조건이자 정신의 실체로서 주어져 있는 것이다. ‘집단무의식’이 전(前)-의식의 정신성이라는 관점에 따른다면 여러 정신의 병리적 현상들을 전적으로 한 개인의 과거사로 소급시킬 수 없게 된다. 어떤 정신병리적 증후는 의식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고태적인 정신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나타난다고 해명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C.G. 융은 ‘집단무의식’은 더 이상 개인성에서 유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정신의 현상들을 유아기적 성욕구에 환원하여 이해하려는 정신분석적 작업을 비판한다. 신화나 예술, 문학작품들은 더 이상 한 개인의 개인사로 소급시킬 수 있는 산물이 아니라, ‘집단무의식’의 자발적인 산물임을 제안하게 된다. C.G. 융에서의 ‘무의식’은 ‘개인무의식’을 쉽게 의식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무의식’을 의미한다.

C.G. 융의 ‘집단무의식’은 S. 프로이트의 ‘무의식’과 마찬가지로 본능에 해당한다. 그래서 C.G. 융은 ‘집단무의식’을 인간으로서의 전형적인 행동을 할 본능인 “행동양식”과 전형적인 표상을 할 능력으로서 “원형”으로 나타낸다. 각 개인은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공통된 행동양식과 전형적인 표상을 할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의식적으로 일어난 생각이나 행동도 모두 이러한 무의식적 원형적 심상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집단무의식’이 행동으로 나타나든 心象으로 나타나든 그 자체로 고유한 목적적인 활동력을 가진다. 이를 본능이 가진 전형적인 충동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 본능은 그 본질상 불분명하거나 모호하지 않고 특수하게 형상화된 충동력이며, 의식화되기 훨씬 이전에, 어느 정도 의식에 이르렀는지 상관없이 그들의 내재적인 목표를 따른다. 그러므로 본능은 원형과 전적으로 상응한다. 너무 비슷하여 원형이 본능 그 자체의 模像들Abbilder이라고 할 근거가 있을 정도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원형들은 본능적인 행동의 기본 틀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²⁾

이 구절에서 보듯이 본능적인 행동양식은 정신에서는 충동의 像(Triebbild)에 상응하는 것이다. “원형”이 드러난 ‘원형상’은 그 자체의 충동, 즉 역동적인 힘을 가진다. 그래서 “원형은 像 그 자체일 뿐 아니라, 동시에 역동이다”라는 사실로서 본능을 순수하게 정신적인 관점으로 다룰 수 있다. 또한 “像은 충동을 의미하는 동시에 충동을 환기하는 것이다.”³⁾라고 하는 것은 心象에 의하여 실제로 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心象이든 행동이든 본능이라는 점에서 의식의 의도나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닌 만큼 행동을 하거나 표상을 함으로써 비로소 의식에 알려진다.

원형은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본성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본성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 의미를 의식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너무도 무의식적이어서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정도이다..... 현대심리학의 성과에 따라, 한 번도 의식된 적이 없고 단지 의식 내용에 미친 영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전의식의 원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

2) C.G. Jung, 'Über den Begriff des kollektiven Unbewußten', in G.W. Bd. 9 par. 91

3) C.G. Jung, 'Über den Archetypus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Anima-Begriffes', in G.W. Bd. 9 par. 136

지가 없다.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정신 기능들이 한때 무의식적이었고, 그럼에도 마치 의식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가정들을 반대할 근거는 없다. 인간의 정신현상에서 보이는 모든 것이 이미 선천적으로 무의식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그렇다면 도대체가 왜 의식이 존재하는지를 이해 할 수 없다는 의의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였듯이, 무의식적으로 기능하는 모든 것은 자동적인 본능의 성격을 지니고, 충동은 어느 정도 충동하였거나, 심지어 개인에게 때로는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조건에서도 그 강제성 때문에 영향 받지 않고 진행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의식은 적합하게 조정된 적응능력, 즉 충동억제를 가능하게 하며,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없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인간은 의식능력을 지님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된 것이다.⁴⁾

C.G. 융이 ‘집단무의식’을 본능이라고 할 때, 본능이란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바탕이 되는 것으로 굳이 성애적 내용을 가진다고 하지 않는다. 앞서 보았듯이 전형적 행동양식이나 전형적 표상 능력들은 모두 ‘형식Form’의 개념일 뿐이다. 그 내용성은 본능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애적이라든가, 인간 동물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위의 인용구절에서 보듯이 그 내용성은 자아의식의 개인성에 기인한다. 만약 성애적이라면 본능적 충동 그 자체에 기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양상을 반영하는 내용이거나, 그 내용을 표상하는 의식에 유래한 것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S. 프로이트가 주목하였던 근친상간적 주제는 전적으로 다른 해석을 가할 수 있다. 이는 실재의 근친상간적 주제가 아니라, 대부분 전-의식적 ‘무의식’과 자아의식의 관계는 어머니와 아들처럼 상징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 ‘집단무의식’이 개인에 기초하는 정신성이라는 관점은 형식적인 면에서 역동적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각 개별의 개인적 정신의 내용이 ‘집단무의식’의 영향으로 개인성을 넘어 보편적인 이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의미이다. 말하자면 개별이 가진 개인적 내용을 인류집단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고무시키는 원동력이 ‘집단무의식’인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각 개인에게 솟아나는 이념을 인류를 위한 이념으로 바꾸는 원동력이므로, 인간의 본성적, 본능적 힘에 의하여 개인 인격의 풍부함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서 ‘집단무의식’은 도저히 억압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소급시켜서도 안되는 객관정신에 해당한다. 오히려 이 본능적 충동의 영향으로 개인은 자신의 편협한 개인성을 넘어 인간 종의 고유한 목적을 수행하라는 요구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숨어있는 심혼의 주체자로 드러난다. 이런 의미에서 C.G. 융에서 ‘집단무의식’의 본능은 중요한 내용으로 등장한다.

본능과의 이러한 친족성에도 불구하고, 혹은 오히려 이 친족성 때문에 원형은 심혼 고유의 요소를 표현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심혼은 인간의 이성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의 심혼적 지도자를 표현하는 것이다. 모든 심화와 종교 그리고 - - 주의의 본질적 내용은 원형적 성질의 것이다. 원형은 심혼 혹은 유해한 이데올로기이며, 원형이 결국 무엇으로서 자신을 드러낼지는 대개 인간 의식이 어떠한 관점을 취하느냐에 달렸다.⁵⁾

이 구절에서도 드러나지만, ‘원형’은 본능적 측면이기 때문에 인간 의식의 하위에 자리잡고 있거나 소외되어있는 정신의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고전적 의미의 심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말하자면 원형적 출현은 오히려 의식에 강한 인상을 남기는 像이거나 의식의 일반적인 태도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심혼적 지도자’의 조연인 것이다.

‘집단무의식’은 행동하거나 표상할 가능적 형식의 개념인 만큼 원래 따로 의식될 필요가

4) C.G. Jung, 'Theoretische Überlegung zum Wesen des Psychischen', in G.W. Bd. 8 par. 412

5) C.G. Jung, 'Theoretische Überlegung zum Wesen des Psychischen', in G.W. Bd. 8 par. 406

없는 정신의 영역이다. 현대와 같이 개별 의식의 분화가 이루어질수록 자아의 개별 의식은 자신의 고유한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의지력은 주로 외부의 환경에 따른 활동을 함으로써, 점차 내면의 본성적인 정신의 활동에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의식이 근원적인 정신성으로부터 멀어져 자신의 일방적인 활동을 할수록 '집단무의식'의 본능적 충동은 의식의 태도와 대극이 되는 것처럼 드러난다. 심지어는 의식의 개입없이 정신의 자발적인 산물이 의식의 통제에서 벗어나 그 자체 객관적 실체로서 드러나 비전이나 신비체험 등이 보여주듯이 의식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경험하게 하는데, 이를 분석심리학적으로 '원형적 체험'이라고 한다. 이러한 체험은 C.G. 융이 '누미노스(numinos)'하다고 하였던 것처럼 신과 같이 구체적인 실체로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시사한다. 이처럼 '집단무의식'은 더 이상 주관정신으로 소급시킬 수 없는 '객관정신'으로서 대부분은 각 개인에서 기초하여 그 개별 인격이 크게 본성과 위배되지 않는 한 의식되지 않는다.

C.G. 융은 분석심리학적 작업에 있어 '개인무의식'과 '집단무의식'을 철저하게 구분한다. '개인무의식'은 약간의 심리분석적 작업에 의하여 쉽게 개인의식에 인식되고 수용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개인무의식'은 주관정신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여 한 개인의 개인사로 소급시킬 수 있는 내용을 '집단무의식'으로 여긴다면 이는 주관주의적 편향에 이르고 만다. 집단무의식인 '원형'은 형식적이지만, 일반 충동으로 발현하면 '객관정신'으로서의 특징을 가지므로 자아의식의 개별성과 동일시되어서는 안된다.

원시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생각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 되어진다'는 것으로 표현하거나 복부를 생각하는 기관으로 표현한다. 말하자면 개별 '의식'의 분화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의식'의 의지와 관련된 것으로 경험하지 않는 것이다. 원시인들은 정령을 믿으며, 그에 관련된 여러 현상을 실제로 겪거나 정령을 외부의 실재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정령과 이야기를 하거나, 그것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강력한 주문과 마술적인 힘을 동원한다. 원시인들은 '집단무의식'의 산물을 오늘날의 우리들처럼 내부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실재 사실로서 경험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들의 놀이를 살펴보면 즐겨 혼자서 중얼거리듯 하면서 말을 주고 받는다. 그것은 대부분 아동이 자신의 공상적 인물상과 이야기를 나누는 광경이다. 아동들은 원시인들과 마찬가지로 환상이나 공상을 저절로 객관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처럼 '집단무의식'은 한 개인의 주관으로 소급시킬 수 없는 객관적인 것이고, 그것은 쉽게 외부에 투사되며 외부의 실재 대상처럼 경험된다. 원시인들은 그것을 객관적인 것으로 여기며 직접적인 무서운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이처럼 '집단무의식'은 개인적인 정신의 내용과 구분되며, 오히려 주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정신'이다.

그 밖의 원형적 자료를 지적한다면, 정신병 환자의 망상관념, 황홀상태의 환상, 초기 유아의 꿈(3세~4세 사이)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대망상이 있는 환자는 자신을 예수나 대통령 등과 같은 인물상과 동일시한다. 이처럼 한 개인의 내부에 신격화된 인격이 있음을 보고하는 것은 '집단무의식'의 초개인적 특성을 나타낸다. 그런가 하면 종종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생각을 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모두 원형적 심상에 해당 것이다. 또한 초기 유아의 꿈의 경우는 결코 개인적 인격으로 소급시킬 수 없는 심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한 개인에서 운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예고하는 심상들이다. 특히 3세~4세의 시기는 '나'라는 주체감을 획득하는 시기인 만큼, '자아'의 정립과 관련된 독특한 양상의 꿈들이 있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아동들이 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알려지기 어려우나 아동의 경험에서 생산할 수 없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신화적 양상을 띠며, 삶과 죽음, 구원 등의 철학적 주제를 담고 있다. 이처럼 아동기에 경험하는 심상들은 대부분 아동 개인의 경험적 산물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기초한 정신영역의 산물로서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상에서 보듯이 '집단무의식'은 개인 인격의 기초가 되는 정신영역이자 인류 공통의 정신 영역이다.

콤플렉스 (Komplex)

심층심리학적으로 한 개인의 정신의 발달사, 인격의 성장과 성숙을 다루려면 자아의식의 발달사를 살펴야 한다. 자아(나, ego, das Ich)는 전체의 부분 영역, 특히 의식을 지칭하는 영역이다. 자아는 의식의 중심 혹은 의식의 주체이므로, '자아의식'이라고 한다.

심층심리학적으로 한 개인의 인격을 표현하자면, 다중 인격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내면의 구조는 다양한 콤플렉스들로 이루어져있는 것이다. 내면적으로 끊임없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자아가 무엇을 하는 동안에도 저절로 다른 생각이 떠오르듯이, 수없이 의식의 활동을 방해하는 내적 요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위 내안에 또 다른 내가(?) 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정신=자아의식이 아니며,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알려지지 않은 정신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라는 주체의 인격은 단지 일부일 뿐이다. 이 때문에 주관정신과 객관정신으로 나눈다.

무의식의 경험은 결국 '콤플렉스'의 경험이다. 흔히 무의식에 관한 경험이 꿈을 꾸거나 몽롱한 정신상태이어야 가능한 것으로 여기는데, 사실 의식의 활동을 방해하는 자율성을 가진 부분 정신에 의해 매 순간 할 수 있다. 각 개인의 내면은 여러 콤플렉스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콤플렉스야말로 정신의 기본 단위에 해당한다. 융은 자아도 하나의 콤플렉스라고 하였다. 이는 자아가 전체 정신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적인 자신의 영역을 주장하고,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나머지 콤플렉스들의 자율성은 오히려 자아의식과 연계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있음을 의미한다. 각 콤플렉스는 일종의 독립된 인격체의 특성을 갖는다. 자아만이 의식을 갖고 인격을 대표하게 된다. 나머지 콤플렉스들은 자아의식과 연결되어야 자신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다.

한 개인의 정신의 특성이나 내용은 콤플렉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매순간의 정신활동 및 특성은 자아 콤플렉스와 다른 콤플렉스의 관계들로 드러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모성 콤플렉스가 있다'고 표현한다. 이는 자아가 모성 콤플렉스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흔히들 외부의 어머니와의 관계로 이해하는데, 심층심리학적으로는 내면의 모성상 즉 모성 콤플렉스가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콤플렉스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자아 콤플렉스의 형성은 자아의식의 탄생과 정립 등 인격의 발달사로 다루게 될 것이다. 다른 콤플렉스의 경우를 살펴보자. 융은 부모상, 즉 부모콤플렉스(모성 콤플렉스 혹은 부성 콤플렉스)의 형성은 생후 1년경에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어쩌면 부모상은 가장 오래된, 가장 거론이 많이 되는 콤플렉스가 될 것이다. 하나의 콤플렉스가 형성되는데에는 무엇보다 우리 내부에 선형적인 조건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어떤 자극이 외부에서 주어지면, 그것에 반응하도록 내적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 융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를 집단무의식의 '원형'이라고 불렀다. 인간이면 누구나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할지의 선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의 전형적 반응에 기초하지만, 드러날 때는 개별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것이다. 인간의 정신적 내용은 백지 상태에서 경험과 학습의 축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초기 아동기인 신생아 시기에도 아동의 정신은 백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동의 눈동자를 굴리며 심상을 보고 있는 수면(REM)을 취한다. 정신의 활동은 언제나 심상으로 채워져 드러난다.

외부의 사건이 자극이 되면, 내부에서 마침내 그에 상응하는 내적 조건, 선형적 요소가 작동을

하는 것이다. 이로써 어떤 특성을 가진 심적 요소가 군집을 일으켜 구체화된다. 그래서 콤플렉스의 정의는 ‘감정이 강조된 내용(gefühlbetonte Inhalte)’ 혹은 심적 요소의 군집이다. 다시 말하면 외부의 자극이 주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원형이 작동이 되도록 깨어나서 그 내용성을 형성하도록 기초를 마련한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양육자로서 돌보는 행위를 하면, 아이의 내부에서 모성 원형이 작동하여 마침내 모성 콤플렉스를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콤플렉스는 원형에 기초한다고 하겠다. 결국 콤플렉스는 기본이 되는 그 핵 요소를 중심으로 그에 상응하는 요소들이 모여들게 된다. 그 핵요소는 원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결국 콤플렉스는 내용적으로 원형적 요소와 개별적 반응적 요소 및 실제 외부에서 준 자극으로 이루어진다. 콤플렉스의 작동 또한 실제 외부에서 준 자극에 의해서, 혹은 개체가 갖는 고유한 반응적 요소에 의해서, 혹은 원형적 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외부의 상황을 접하면 내부에서는 저절로 그에 상응하는 콤플렉스가 작동하여 심상을 형성하게 된다. 이에 대해 우리는 무엇인가 ‘떠오른다(Imagination)’고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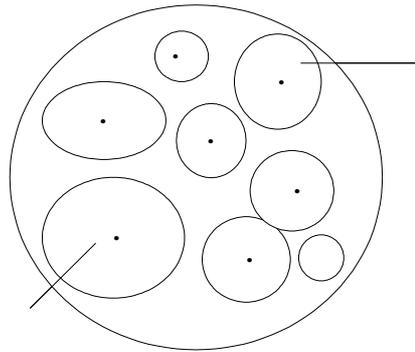
콤플렉스의 중심에는 강력한 정동성(Affekt, affect)이 자리 잡고 있다. 정서나 정동성이 콤플렉스를 작용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강한 정서나 정동은 자아로 하여금 의식적 통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한다. 이는 본능이 작용하는 것과 같아서 자아의식은 제외된다. 종종 우리는 스스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한다. 흔히 ‘내 콤플렉스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이유는 열등감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심적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다. 원시인들도 흥분상태에 이르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소위 ‘영혼의 상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한다. 특정한 지역에 가거나, 특정한 물건을 만지는 것 등을 극도로 조심하는 것은 모두 정서적 반응을 야기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만나서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하는 것, 혹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 것도 모두 상대를 정서적 흥분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콤플렉스는 무의식적 정신의 경험적 실체로서 한 개인의 실제적인 정신적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콤플렉스를 구성하는 데에는 외부에서 제공된 사실 뿐 아니라, 내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형적 조건에 기초하고 있다. 어쩌면 선형적 조건을 환기하기 위해 외부의 자극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콤플렉스를 외부에서 주어진 내용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이해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모성상, 모성 콤플렉스에 관하여 논의하여 보자. 모성상을 각자 떠올릴 때 그 심상은 부분적으로만 각 개인이 경험한 어머니 심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적 경험을 넘어선 모성상의 특질이 드러난다. 꿈에 등장하는 모성상은 개인의 어머니의 모습도 있지만, 종종 신화 속에서나 나타날 심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비개인적 특성의 어머니 형상의 출현은 매우 흔한 일이다.

우리는 아동기 내내 우리 내부에 있는 콤플렉스인 부모상을 외부의 부모에게 투사한다. 그래서 실제의 부모와 다른 모습으로 기억하거나 근친상간적 관계에 이르기도 한다. 아동기일수록 개인적 내용보다는 원형적 내용이 더 많고, 성인기에 이를수록 개인적인 내용으로 더 많이 채워질 수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며, 보상적 특성에 의해서 원형적 내용이 언제든지 두드러질 수 있다.

콤플렉스는 증상을 만드는 주범이다. 이는 무의식적 정신의 일방적 방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아의식의 태도에 대한 상대적인 반응적 태도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자아의식의 일방성이 문제가 되어 ‘노이로제’와 같은 증상이 생겨난다. 콤플렉스는 왜곡된 태도를 가진 자아의식을 조정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를 무의식의 ‘보상적 기능(kompensationsche Funktion)’이라고 한다.

자아 콤플렉스



모성 콤플렉스